

문화

미리보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D-9

삶 주제전

‘펜의 미학’ 드로잉 세계로의 초대

‘더할 나위 없는-The Clue’를 주제로 한 제3회광주디자인 비엔날레 (9월18일~10월11일) 개막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에 따라 전시 기간이 당초보다 24일가량 단축됐지만 일상 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많고,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배영진 작 '인형과 옷'

삶에 녹아든 모든 것 예술을 만나다

한국적인 멋 디자인으로 재해석... 관객 맞을 채비

주제전은 일상의 모든 것이 디자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총체적 삶으로서의 디자인 개념'을 선보인다.

세계적 기법이 참여한다. 대나무 숲 연작과 움직임이 있는 설치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손봉채씨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비빔밥을 주제로 한 설치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끈다.



마미모 피티스 작 '하노버'

한국적인 멋을 느낄 수 있는 한복, 그릇 등 다양한 일상생활 용품이 아름다운 디자인의 옷을 입고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집(큐레이터 조병수)=집에 담긴 디자인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색선이다. 한옥과 서구 건축디자인, 부엌과 주방, 가구 등 인간이 주거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에이는 페이로 작 '아키테이프 & 테이프 컬렉션'

또 남구 양림동 일대를 전시공간으로 삼았고, 강진 백련사에서 국악을 녹음한 뒤 이를 전시관에서 들려 주는 등 과학적인 전시 기획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글(큐레이터 한재준)=한글과 각종 언어의 다양한 서체 디자인, 포스터 등을 비교·전시한다. 세계문화유산인 훈민정음 색선에서는 한글 창제 원리를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참여 기업들이 작품을 직접 상품으로 만들어 선보인다.

▲옷(큐레이터 배영진)색선=한국의 김택상, 정중미, 일본의 이세이 미야케, 프랑스의 장 폴 고티에 등이 참여해 다양한 패션 디자인을 전시한다.

▲소리(큐레이터 김영일)=소리 산업 속 디자인의 다양한 모습을 전시한다. '사운드 오브 광주'를 주제로 남도의 다양한 현장을 녹음한 뒤

▲맛(큐레이터 오정미)=음식에 담긴 시각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식기의 디자인적 관점을 살펴보는 색선이다. 영국의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 한국의 나유미, 오정자씨 등의 작가와 네덜란드의 로알 코펜하겐, 이탈리아의 에스프리사 등의

주재현 '드로잉'전...10~16일 원화랑

노트르담 성당 등 생생하게 담아

드로잉 작품에는 작가의 호호와 현장의 감동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한국화가 주재현씨가 10~16일까지 광주시 동구 공동 원화랑에서 '주재현 드로잉'전을 갖는다.



'체코 프라하의 봄'

이번 전시에서 주씨는 티베트,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를 돌며 완성한 드로잉 작품을 선보인다.

짧은 시간에 포착한 건물과 풍경이 생생하게 담긴 드로잉의 진수를 선사한다.

노트르담 성당, 캄보디아 수상가족, 포탈라궁, 캔터베리 대성당 등을 기법에 얽매지 않고 자유롭게 그려낸 작품이다.

팬만을 사용해 작품을 완성했는데도, 선의 중첩을 통해 자연스러운 빛의 강약을 표현했다.

또 금강산 보덕암과 삼선암의 풍경을 그린 드로잉 작품은 수묵화의 여백의 미와 묵의 짙고, 얇음이 느껴진다.

미술평론가 이세길씨는 "이방인의 눈이 아닌, 현직인이 자신의 삶을 담아낸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굴절 없이 표현된 작품"이라고 평했다.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와 출신으로 일본 동경예술대학 대학원 보존수복기술훈위원을 전공한 뒤 일본, 서울, 광주 등에서 9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제7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했고, 국제현대미술교류협회 회

장과 선목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2-654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도의 넉넉한 풍경 앵글에

사진작가 정해선

광주·서울서 잇단 개인전

남도의 넉넉한 풍경을 카메라 앵글에 담고 있는 사진작가 정해선씨가 광주학생문화교육회관(9~13일)과 서울시 서초구 한천프라자 아트센터(19~27일)에서 잇따라 개인전을 갖는다.



'담양 금성산성'

이번 전시에서 정씨는 지리산, 덕유산, 금성산성, 해남 송지 등지를 담은 풍경사진을 선보인다.

이들 작품은 자연의 색과 빛이 조화를 이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산과 나무, 해가 이루는 황금비율이 돋보인다.

또 저물어 가는 해가 고사목에 걸린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거나, 노을과 어둠이 교차하는 찰나를 찍은 작품에서는 작가로서의 열정도 엿보인다.

한국전력공사에서 32년 동안 근무한 정씨는 광주시사 진대전 운영위원, 광주관광사진공모전 심사위원, 창원전

국사진공모전 심사위원을 지냈다.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지리산·남녘의 산'전 등의 전시를 열었다. 문의 062-380-885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가을 길목 고택에서 하룻밤 묵으세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6~27일 안동 역사탐방

가을향기 물씬 풍기는 고택에서 하룻밤 묵으세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문병란)은 오는 26~27일 안동 지역을

깊이 있게 탐방하면서 호남 지역의 정실문화와 비교체험 할 수 있는 1박 2일 테마여행 '안동역사문화탐방'을 떠난다.

한국정실문화의 본 고장인 안동 지역 곳곳에 숨겨진 역사의 흔적을 찾아나서는 이번 탐방에서는 안동소주

박물관, 도산서원, 퇴계종택 등을 방문하며 안동고성이씨종택 '임청각'에서 숙박한다.

둘째날에는 봉정사, 이천동서불상, 병산서원을 들리며 하회마을을 찾아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관람한다.

18일까지 선착순 40명을 접수(http://www.reef.or.kr) 받는다.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 초등·중학생은 8만5천원. 문의 062-234-272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Business Big Support' (작은만남 큰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Gwangju. Includes categories like '오리촌돈이네', '24시사랑하기', '화석시대(진월점)', '한기건강기능식품', '유미식당', '아름다운', '한국불교각각계종 협성암', '신화당약국', '물입수학', '조은유롱', '양복수선광주', '박찬일세무회계사무소', '푸른솔학원', '신세계익스프레스', '청호달첩학원', '아구찜나라', '족제골', '동양근로자대기소', '삼호스킨실내골프연습장', '하나로익스프레스', 'GS네스테이션(영진점)', '조은보석', '청운상회', '승찬철학원', '술공인중개사'.